

문화유산 상시 돌봄체계

안전한 유산 관리 실현

충북도는 시군 및 충북문화유산돌봄센터와 협력하여 도내 문화유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상관리, 경미수리,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유산 상시 돌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대응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2011년 “충북문화유산지킴이” 사업을 시작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이다.

돌봄사업은 계절별 특성에 맞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봄철에는 해빙기 시설물 점검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여름철에는 예초작업과 풍수해 예방활동을, 가을철에는 여름철 손상 부위에 대한 경미수리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과 폭설 피해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 11개 시·군 문화유산 60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2,234건, 일상관리 10,872건, 경미수리 440건을 수행했다.

2026년에는 충북 도내 문화유산 608개소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청주오송 자율주행 DRT

‘AI콜버스’ 운영 개시해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버스를 호출해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버스(DRT) ‘인공지능(AI) 콜버스’가 5일부터 청주시 오송역 일원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이날 오후 오송역 선하마루 일원에서 자율주행 DRT(AI콜버스) 운영 개시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신병대 청주부시장,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자율주행 DRT는 국토부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이르는 구간에 3대가 투입된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콜버스 모바일앱(바로 DRT)에서 경로를 설정하고 예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2026년 상반기에 유료화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DRT가 투입되는 오송읍은 교통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시는 오송역과 조치원역을 잇는 생활권의 접근성과 환승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병대 부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DRT 운영 개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이라는 큰 성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을 고도화해 시민 체감형 이동권을 높일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국민의힘 숙원사업 해결 및 국비 확보

영호남과 충청권 예산 삼각 균형 필요…대전교도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시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5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전형식 충남도 정부부지사가 대신 자리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의 당면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시·도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장우 시장은 당 지도부와 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및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이 시장은“영호남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충청 출신 장동혁 당대표의 선출은 상당히 큰 의미”라며 “이번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은 영호남과 충청의 삼각 균형이 맞춰져야 한

다.

특히 여러 현안이 있지만 대전의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최우선으로 배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이 국가의 책임 영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업비 반영을 강조했다, K-콘텐츠 성장에 발맞춰 추진 중인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비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중심이다. 과학, 행정, 산업, 바이오 교통의 중심이다.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차질없이 조성되고 충청권이 손잡이 경제과학수도 도약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11월 한 달간 가을철 교통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임시주차장 확보▲교통안내요원 배치 ▲불법주차장 단속 등을 추진한다.

이채봉 기자

한글서예가 취석 송하진 작품기증

한글문화도시 조성 취지 공감…서예·백자 등 19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한글서예가 취석(翠石) 송하진 작가로부터 한글서예 작품과 한글 문구가 새겨진 백자 등 총 19점의 작품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도시’ 조성 취지에 공감한 송하진 작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종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증 작품에는 한글서예의 조형미와 운율을 담은 서예 작품과, 한글 문양을 입힌 백자 등이 포함됐다.

송 작가는 한글을 회화적 요소로 확장하며 전통 서예의 틀을 넘어선 독창적인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박연문화관에서 열린 ‘취석 송하진전’에서 한글서예가 현대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70점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을 세종시의 주요 전시와 한글문화 홍보

물 등에 활용해 시민과 방문객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송하진 작가의 기증은 세종시가 한글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 모두가 한글의 예술성과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임종을 앞둔 한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결정과 호스피스 등에 동의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건소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이채봉 기자

교육현장 소통강화 지역교육 발전



대전 중구는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교장 45명과 함께 교육 현안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와 학교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시는 학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중구는 앞으로도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

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구와 대전세무서는 5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지역 소상공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상호 참여 ▲취·창업 관련 행사 운영 시 상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선 청장은 “협약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세부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바르게살기운동과 행복한 충남 만들 것”

김태흠 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서 헌신한 회원들에게 감사 뜻 전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헌신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5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도 회원대회’에서 “회원들의 헌신과 실천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36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 아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회원들은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사랑의 집수리 △깨끗한 지역 만들기 등 녹색생활운동 △산불·수해 등 재난 현장 복구 활동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올해 회원대회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도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와 당진시협의회가 각각 주회·주관하고, 도와 당진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차호열 충남협의회장, 시군협의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대회사, 도지사 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대회기 이양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는 국민의 자율적·능동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도내 회원 수는 1만 7073명이다.

한편, 충남도는 ‘2025 음식문화개선 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천안

시와 홍성군을 선정했다.

행사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우수 공무원으로는 서산시, 서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어 김현 청운대 교수가 ‘음식 Shorts(쇼츠) 제작기법’, 김용문 혜전대 교수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현희 과장은 “이번 평가대회가 충남의 음식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먹거리 식품안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